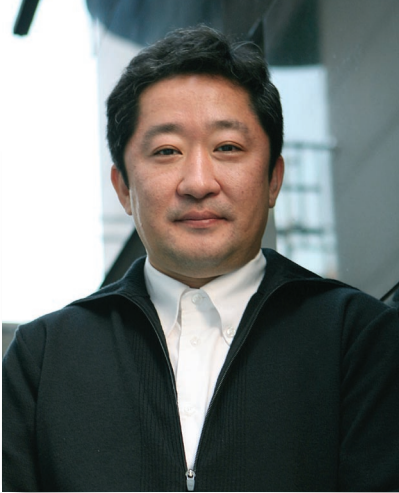


책의 미래, 전자책이 열어간다



글 **최영찬** 한국전자책컨소시엄 회장

최근 전자책 업계의 화두는 유비쿼터스북(u북)이다. u북이 실현되면 한 번의 구매로 기존 PC나 PDA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자책을 볼 수 있다. 학교나 직장, 집의 PC에서 보던 전자책을 지하철 속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게 된 것이다.

e북을 넘어 u북으로 진화한 전자책은 변화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의 중심에 있다. 3,800만명에 가까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통신과 오락, 그 이상의 무엇을 제공하는 매체로 인식하면서, '책'이라고 하는 검증된 전문적인 정보에 대한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실제 양적으로 풍부해 최신 베스트셀러도 제공되고 있으며, 휴대전화 성능과 디스플레이의 개선으로 가독성도 훨씬 높아졌다.

아울러 전자책은 휴대전화 이외에도 MP3플레이어·전자사전·PMP(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DTV·PSP에 최적단 디지털 기기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탑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자책 도서관이 서비스되고, 산간도서 벽지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전자책은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책 읽기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책의 효용성

전자책은 <프리스 파피루스>에서 시작된 4,000년 책의 역사 이래,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종이책에 익숙한 기성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정보 세대에게는 익숙하고 편리한 그냥 '책'으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떤 미디어에 담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의지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높았다. 나무나 뼈 조각, 돌 등에 간단한 부호로 표현하는 데서 시작된 미디어의 역사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후 활자와 종이를 통해 급격하게 발전했고, 이제 전자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500여년 동안 지식의 보고였던 출판은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출판 콘텐츠는 정보산업의 핵심 기간산업이다. 출판산업에 있어 전자책은 블루오션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태동기 넘어 성장기 진입

전자책은 산업 태동기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정보기기의 다양화와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로 B2C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했고, u북 등 모바일 서비스는 전자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2B의 활성화로 1,000억원대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자책의 본격적인 성장에 따라 미래의 독서환경은 달라질 것이다. 출판의 형태와 유통, 저작물의 내용이 달라진 전자책 시대에는 종이책의 영역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분야가 전자책으로 출판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고,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다양한 책과 만나게 될 것이다. 책의 미래로서 등장한 전자책은, 미래의 책으로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